**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2018년 3월 30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사순시기 동안, 특히 성 금요일에 미국 성당에서 자주 부르는 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역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때 당신도 거기 있었습니까?’하는 내용의 성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때 당신도 거기 있었나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며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까?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앙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신앙을 져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은 아무 책임없고 무관하다고 손을 씻고 물러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정의나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기어이 피를 보자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군중심리에 쫓아서 참된 진리의 실천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 당시의 군중들 처럼 말입니다. 그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듣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돌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박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찔린 상처를 그대로 갖고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예수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유다나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못박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살자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내것만 악착같이 끌어안고 뺏앗기지 않으려고 삽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더 미워하고 더 깊은 상처만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갈등과 긴장을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로 나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로 나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와 인간들사이의 관계가 이 십자나무를 통해서 비로소 연결이 되었습니다. 막혀 있던 것이 뻥 뚫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원한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증오를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자비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인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삶의 희망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더이상 고통과 아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얼굴, 자비의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는 시들고 죽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모두 언제가는 없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영원한 것이 없기에 언젠가는 떠나가고 맙니다. 뜨거웠던 인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져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구원,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경배 예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참 생명과 참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합시다.